

#### 창세기(4)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추측해서 만들어낸 이론들은 다 부패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전부 다르고 각자 이론이 다른데, 이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창조물을 보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을 믿겠습니까? 여기 창공이 있으라 했습니다. 어제 조금 했지만, 창공이 있음을 통해서 물이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왜 나누셨을까,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공이란 말은 원래 firm 이란 뜻으로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는 뽕뽕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공간이 물을 받치고 있겠습니까? 이걸 말이 안 되지요. 어떤 물체가 받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 이것은 물이 아니라 수증기다’라고 합니다. 공간을 공간으로 보니까 그래요. 창공을 인간의 방법으로 물질로 보지 않고 단단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냥 파란 공간으로 보이니까 위에 있는 것도 물로 보지 않고 수증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여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라는 게 전부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 신학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의견에 따라서 얘기만 늘어놓으니 골치만 아프고, 신학자마다 전부 의견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환란 때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린다고 하셨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말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물질계를 볼 때 하늘은 공간이 분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공간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은 물질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창공을 만드시니까 물이 당연히 나뉘 수밖에 없지요. 물과 물 사이에 어떤 물체를 끼워 넣으면 당연히 나뉘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쇠 판을 집어넣으면 쇠 판 위와 아래로 나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신학자들도 과학자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잡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 장에 있는 것처럼 자연인은 natural man, 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즉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고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이것을 생각하고 또 따지고 이론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 역시 하늘 위에 수증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일층천에 떠다니는 구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48 편 4 절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들, 단수가 아닙니다. 층수가 많지요. 하늘들 위에 층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욥기에도 보겠습니다. 욥기 9 장 8 절 “그는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 위를 밟으시는도다.” 하늘들을 펴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공간을 펴니까? 분명히 우리 눈에는 공간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물을 받칠 수 있는 물질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인 것입니다.

창공 아래에는 해도 있고 별도 있고, 엄청난 우주의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보좌는 깊음의 표면에 있고 이 깊음의 꼭대기는 얼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세 하늘이 존재한다면 하늘들이라는 것은 적어도 일층천과 이층천을 언급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 장을 찾아봅시다.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이므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6 장 20 절,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할 목적으로 이론을 만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1 학년 1 학기 때 첫 수업이 생물이었어요.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해버리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뭔가 좀 연구해서 학문도 나오고 해야지, 그렇다면 생물학은 없는 거잖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외모는 흰칠하고 잘 생겼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면서 시작할까?

과학이란 것은 사실 사람들이 겸손하다면 ‘겸손한 발견’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말이 과학이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과학이라는 학문으로 만든 것이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6 장에 있는 것처럼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래서 과학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대치됩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론과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등학교 교사 80%가 이것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과학이란 말을 빼어버렸어요. 오직 킹제임스성경에만 나옵니다. ‘science oppositions of science also so called’ 이것을 꼭 빼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도 과학자들에 동조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달밤에 주님이 해변을 걸으니까 그림자가 물 위를 걸었다는 식으로 과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신 것도 그것은 그런 게 아니라 다 도시락을 싸 왔는데 자기 혼자 먹기가 그랬다가 누가 하나 내어놓으니까 다들 꺼내어서 먹었다.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이다. 이렇게 반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끄니다. 이러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8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좋았더라’는 단어가 없다고 이미 말씀 드렸지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공중에 어떤 존재를 두셨기에 창공에 무엇을 두셨기에 좋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한 번 에베소서 6 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신비로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우리가 궁금해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 장 10 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높은 곳에 마귀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군단은 크게 4 가지가 있습니다. 정사는 정치가들에게 권세를 주는 정사 마귀요. 권세는 또 정치가 밑에서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목을 조르는 권세 마귀요. 어둠의 주관자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술에 취하게 하고 마약을 먹게 하고 동성연애를 하게 만들고, 지금 미국에 동성연애가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뭘니까?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 서로 싸우게 하고, 집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사업장에서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취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동안 가두어 두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4 장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정사와 권세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이 사탄을 따라간 거죠. 이사야 24 장 21 절, “그 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높은 곳 창공에 사탄의 권세가 땅들의 왕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면서 땅들의 왕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 장을 보니까 그 마귀가 환란 때에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했습니다. 그때 땅의 왕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땅의 모든 왕들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41 장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에는 용의 모습인 사탄의 모습이 잘 나와 있죠. 31 절 “그는 깊음을 솔 같이 꿰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솔 같이 만드는데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깊음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깊음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솔 같이 꿰이면서 바다를 향기름 솔 같이 만드는데다. 사탄이, 용이 공중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게 되면 이 사탄은 끝없는 구렁으로 갇히게 됩니다.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거든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땅을 책망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예수 믿지 않은 것은 바로 죄다.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이는 너희가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함은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은 받았는데 아직 형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포해서 가두는 것이 주님 재림 때 일어나고, 천년왕국 후에 완전히 그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지요.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언도를 받고 한 달 후 집행된다는 결정이 나면 그 사형수는 엄청나게 포악하게 군다고 합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앞에서는 누구도 꿈작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꿈작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죽기로 작정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사탄은 이미 심판 받고 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다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으로 그를 찔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가 패배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 지금은 내가 상처받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나의 승리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뭐가 잘될 때만 할렐루야 하는 요즘 믿음을 보면 참 그래요. 뭐가 잘 되면 나와서 찬송하고 안 될 때는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매달리는 이런 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이렇든 저렇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알고 울면서도 찬양할 줄 알아야지요. 이런 것이 바로 찬양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면 결국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탄이 공중에서 활개를 쳐도 우리 안에 그보다 강한 사탄을 이기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행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슬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 안에 주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것이 왜 기쁨으로 변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말을 이른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사탄 생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오늘도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창조하실 때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셨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말씀들이 다 믿어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여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함께 기쁨으로 들림 받아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고,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니다. 아멘.”